



JARA NEWS

Japan Automobile Recycle Network News

AUGUST 2016 No. 102

www:jara.co.jp

JARA,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회원 지원

JARA (일본 자동차 리사이클러즈·얼라이언스, 기타지마 소쇼(北島宗尚) 사장, 도쿄도 주오구(東京都 中央区))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회원의 사업 지원을 본격화한다. 먼저, 8월 여름휴가가 끝나는 시기를 목표로 하여 재활용 부품의 판매 실적 등을

토대로, 사용 후 자동차의 견적 가격을 자동 산출하는 새로운 툴의 운용을 시작한다. 구매 담당의 영업 사원이 현장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의 활용을 전제로 개발한 것이 특징이다.

새롭게 도입하는 툴은 리사이클 파트 네트워크 'ATRS (오토 모빌 토털 리사이클 시스템)'에 추가한다. JARA 본부가 관리하는 전국의 수주 데이터와 판매 실적, 재고 회전을 등을 활용하여 자동 산출하는 것으로, 자사 내에서 개발했다. iOS, 안드로이드 단말기 모두에 대응한다.

차량형식을 입력하는 것만으로, 최근 1-6개월 사이의 평균 가격과 검색 수, 재고 개수 등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것이 특징. 검색 시에는 부위가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예를 들면 차량의 파손 부위를 제외한 후 견적 금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했다.

JARA에서는 전국에서 하루 당 4천 건을 넘는 부품 거래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실시간 거래 정보와 과거의 판매 실적 등을 조합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것으로, 회원의 구매 업무와 가격 설정 지원으로 이어지는 신속한 정보 제공을 가능하게 했다. 자동 산출에 있어서는 전국 데이터를 참조하고 있지만, 지역별, 회사별로 참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

이번 차량 견적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업 지원의 제1탄. 앞으로도 다양한 툴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일간 자동차신문 7월 28일)

JARA, 옥션 툴에 부품명 변환 기능 등을 추가

JARA (일본 자동차 리사이클러즈·얼라이언스,

기타지마 소쇼(北島宗尚) 사장, 도쿄도 주오구(東京都 中央区))는, 회원의 업무 효율화 지원을 강화한다. 리사이클 파트 네트워크 'ATRS (오토 모빌 토털 리사이클 시스템)'의 옥션 툴을 개량. 야후 옥션(야후 오쿠) 출품 시에 부품명 변환 기능이나 재고의 자동 조정 기능 등을 추가한다. 새로운 툴은 8월 1일부터 도입할 예정이지만, 내년 7월 1일까지는 현행 툴과 병행하여 운용한다.

새로운 툴에서는 야후 오쿠 출품시에 부품명과 상세 정보를 자동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미리 변환 후 명칭을 등록하는 것으로 자동 변환이 가능해진다. 부품명이 야후 오쿠의 검색 단어에 해당되도록 변경함으로써 유통 금액의 증가로 이어지는 장점이 있다.

부품 상세 정보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A / P'를 '에어로 파트' 등으로 변환할 수 있다. 부품 구분이나 훼손 부위에 대한 정보, 등급, 색상 변화 등 17 항목이 대상이 된다.

재고 정보의 조정 기능도 추가된다. 야후 오쿠에 출품한 상품이 ATRS에서 판매된 경우, 자동으로 출품 취하가 되도록 개량한다. 또한, 출품 중이나 입찰 중, 이미 낙찰되는 등의 상태별로 표시를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야후 오쿠에 출품 중이지만 ATRS에 재고가 없는 경우 등, 데이터의 불일치가 발생한 상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화상 표시에도 개량을 추가한다. 야후 오쿠의 상품 정보와 화상 항목에 640 × 480 픽셀의 화상 크기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일간 자동차신문 7월 14일)



차량 견적 지원 툴의 톱 화면

C02 삭감 수치 (수퍼라인 시스템)

재사용부품 사용으로
C02 삭감 효과 참고치
2016년6월

3, 384t

※일반, 중·대형을 포함한 자동차 수리 시, 신부품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C02 배출량과재활용부품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C02 배출량의 차이가 C02 삭감 수치가 됩니다. 일반사단법인 일본자동차리사이클부품 협의회와 와세다대학 환경종합센터가LCA (전생애 환경평가기법 (life cycle assessment))라는 기본 생각에 근거하여 공동 개발하였다.



국토교통성, 벨트 경보 장치 승용차 전좌석에서 의무화, 내년 봄에 기준 도입

국토교통성은, 차량의 기술면에서 안전벨트의 보급과 착용을 철저히 한다. 대형 버스 등의 보조 좌석용 벨트를 의무화하는 한편, 국제 기준을 도입하는 형태로 벨트의 착용을 촉구하는 경보장치를 승용차의 전 좌석에서 의무화한다. 자동 브레이크 등의 안전 기술이 급속히 보급되는 가운데 “가장 유용한 안전장치”(국토교통성)로 자리매김된 안전벨트 관련 기준을 강화하여,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자나 부상자를 줄일 생각이다.

현행법에서는 버스의 보조 좌석에 안전벨트를 비치하는 의무는 없지만, 올가을에 성령(省令)을 개정하여, 대형 버스는 2017년 10월, 마이크로 버스 등 다른 버스는 2019년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장착을 의무화한다. 또한, 제조사가 임의로 비치한 안전벨트에 성능 요구 사항을 마련하고, 일정한 안전성을 추구한다.

한편, 승용차에 대해서는 ‘안전벨트 리마인더’



뒷좌석 안전 벨트를 하지 않으면 차의 방출로 이어진다

라고 불리는 경보장치의 장착을 전 좌석에 의무화한다. 현재는 운전석만 장착이 의무화되어 있다. 유엔의 자동차 기준 조화 세계 포럼(WP29)이 11월에 채택하는 국제 기준을 토대로, 내년 봄에는 이 기준을 국내에 도입한다. 장착 의무화는 봄 이후가 될 전망이다. 트럭과 버스에도 운전석과 조수석에 장착을 의무화.

일본자동차연맹 (JAF) 등에 따르면, 앞 좌석(운전석·조수석)의 안전벨트 장착율은 98·4%

(2015년 조사)로 100%에 가깝지만 뒷좌석은 고속도로에서 71·3%, 일반 도로에서는 35·1%에 그친다. 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차의 방출로 이어지는 등, 에어백 등 다른 안전 장치의 효과도 판단하기 어려워진다. 국토교통성으로서는 안전벨트의 보급과 장착을 차량 기술면에서 촉구하며, 사고 피해의 감소로 이어 나갈 생각이다.

(일간 자동차신문 7월 16일)

중고 에어백의 전매, 끊이지 않아 정부가 대책 본격화 특상법 가이드라인을 운용

정부가 중고 에어백 부품의 유통을 억제하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소비자청(消費者庁)은 중고 에어백이 옥션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실정을 감안하여, 인터넷 판매를 규제하는 특정상거래법(특상법)의 가이드라인의 적극적인 운용을 시작. 경제산업성도 주요 사이트 운영 기업과 협의하여, 주의 환기책에 대한 강화 검토에 들어갔다. 단 관련 법령에서는 재이용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옥션 사이트를 중심으로 중고품을 출품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정부는 경제산업성을 중심

으로 억제책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지만, “법령 준수는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본심을 말하면 팔리는 것은 팔고 싶다. 그것이 순환형 사회가 아닌가?”(호쿠리쿠(北陸)의 해체사업자)라고 호소하는 업계 측의 의견도 적지 않다.

소비자청은 최근 주요 인터넷 운영 기업에 대해 ‘중고 에어백을 여러 개 출품하는 경우, 기업 정보 등의 적절한 정보 제공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했다. 강제력이 없기는 하지만, 소비자청은 이 통지를 통해 중고 에어백 유통에 대한 출품자의 문제의식을 높이고 싶다는 생각.

특상법의 ‘인터넷·옥션에 있어 판매업자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는, 개인이라도 판매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하고 있다. 예로 ‘자동차 부품 등의 동일 상품을 3개 이상 동시에 출품하고 있다.’ 등을 들고 있으며, 이 경우 특상법의 규제 대상이 되어, 필요 사항의 표시와 과대광고의 금지 등이 의무화된다.

소비자청은 이번, 여러 개의 중고 에어백을 출품하는 5건에 대해 야후 측에 문의하여, 판매업자로서 요구되는 필요 정보의 공개 의무를 전하는 등 주의를 촉구했다.

에어백 부품은 자동차 리사이클법에서 폐차로부터 회수 및 적정 처분이 의무화되어 있다. 단, 재이용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인터넷 옥션을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 리사이클법(자리법(自り法))을 관장하는 경제산업

성은 국토교통성 등 관계 부처와 연계. 폐차에서 분리된 에어백의 재판매가 금지되고 있다는 내용을 주지하는 철저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새로운 주요 사이트 운영 기업과 사이트 상에서의 주의 환기의 구조 만들기에 대한 검토도 시작했다.

경제산업성은 중고 에어백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철 스크랩 시세의 하락이 멈춘 가운데, 팔리는 것이라면 에어백도 팔고 싶다.”(관동의 해체업자)라는 본심을 나타내는 사업자도 적지 않다. “애초에 왜 에어백의 재판매는 안 되는지. 근본적인 점에서 검토해야”(환경성) 한다는 생각도 있다. 순환형 환경 사회와 이유를 추구하는 경제 활동은 양립 가능한가? 중고 에어백을 둘러싼 문제는 이에 대한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일간 자동차신문 7월 7일)

에어백 부품은 인터넷 옥션을 중심으로 거래되고 있다



PLACE AD

Advertiser wanted!

Advertise your excellent products and services to readers in the automotive recycling industry around the world!

Contact with JARA Corp.

<http://www.jara.co.jp/>

KOBELCO

燃費のコベルコ!
低燃費のコベルコ!
低燃費のコベルコ!
低燃費のコベルコ!

コベルコが提案する 新しい考え方

1979年世界初の自動車解体機の発売以来、
30年以上にわたって金属リサイクル分野で常にリードし、
環境負荷の低減に貢献してきました。

マルチ解体機

使用済み自動車の解体以外にも廃家電などの金属製機器の解体および
さまざまな複合廃棄物の解体・分別作業が可能です。



SK135SRD

SK210D

コベルコ建機株式会社
<http://www.kobelco-kenki.co.jp/>

KOBELCO

We Save You Fuel
Achieving a Low-Carbon Society

New ideas come from KOBELCO

Since launching the world's first car-dismantling machine in 1979,
KOBELCO has continued to take the lead in the metals recycling industry.
For over 30 years, we have contributed to reducing environmental impact.

Multi-Dismantling Machine

In addition to dismantling end-of-life cars,
Multi-Dismantling Machine can break down
various metal products and equipment
such as used household appliances and
can separate and sort various composite
material wastes.

Car-Dismantling Machine

Car-Dismantling Machine efficiently
separates and sorts raw materials in
end-of-life cars and is able to recover
rare earth metals.



SK210D



SK210D

KOBELCO CONSTRUCTION MACHINERY EUROPE B.V.
<http://www.kobelco-europe.com/>
KOBELCO CONSTRUCTION MACHINERY U.S.A. INC.
<http://www.kobelco-usa.com/>

KOBELCO

神鋼 无坚不摧!
坚硬的信仰

新构想源于神钢

1979年世界第一台汽车拆除机发售以来，
30多年来一直引领金属再生领域，
在降低对环境压力方面功不可没。

多功能拆除机

不仅可以拆除不再使用的汽车，还可以
拆除废家电等金属制机器以及各种复合
废弃物品的拆除、分类作业。

汽车拆除机

可快速进行报废汽车内素材的分类作业，
能够回收稀金属资源。



SK1358R

SK200

成都神鋼工程机械(集团)有限公司
<http://www.kobelco-jianji.com/>

KOBELCO

We Save You Fuel
Achieving a Low-Carbon Society

새로운 발상은 KOBELCO에서

1979년 세계 최초로 자동차 해체기를 출시한 이래,
30여 년에 걸쳐 금속 재활용 분야에서 항상 앞서서서
환경 부하 저감에 공헌해 왔습니다.

멀티 해체기

용도 폐기된 자동차의 해체 외에도 폐가전제품 등 금속제 기기의
해체 및 다양한 복합 폐기물의 해체·분리작업이 가능합니다.



SK1358R



SK200

(주)삼정건설기계
<http://www.samjung-kenki.co.kr/>